

수사의문문의 번역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1)

폴 엘링워스*

번역: 이달**

UBS 그리스어 신약성서 제4판 서문에는 “뉴욕에 소재한 UBS 번역실의 번역전문가들(특히 Roger Omanson)은 구두점 표시란을 수정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발전시켰다”(v-vi; 이탤릭은 첨가함)고 기록되어 있다. 로저의 많은 동료들은 그 일이 너무 힘이 들고 지루한 작업이라서 받아들이지 않을 테지만,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성경과 그 독자를 위한 것이어서, 로저만은 이러한 임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제가 불가피하게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로저가 너무 힘이 들고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수사의문문의 번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기초적인 문제로 돌아가 언어의 주요 기능들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진술하기:

긍정: 나는 먹는다.

부정: 나는 먹지 않는다.

명령하기:

긍정: 먹어라!

부정: 먹지 말아라!

질문하기:

긍정: 당신은 먹는가?

* 전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컨설턴트, 전 *The Bible Translator—Technical Papers* 편집장.

** 한남대학교 교수, 신약학.

1) Paul Ellingworth, “‘When did we see you ... ?’ Translating Rhetorical Questions”, *The Bible Translator* 64:1 (April 2013), 64-74를 번역하여 수록함.

부정: 당신은 먹지 않는가?

언어에는 물론 다른 어떤 기능들도 있다. 예를 들어, “어머나!”나 “우와!”와 같은 감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주요 기능들은 항상 구별하기 쉬운 것이 아니며, 그래서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역동적/기능적 일치를 추구하는 번역가들이 항상 인식해 온 바와 같이—확실히 항상 특별한 문법적인 기능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중한) 어떤 명령은 의문문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을 닦아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바닥을 닦아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순수한 질문으로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싫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언어학자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구별한다. 첫 번째 종류는 “의문사”를 동반한 의문문으로 알려진 것들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what?,” “who?,” “when?,” “where?,” “why?,” “which?,” 그리고 “how?”와 같은 단어들로 분명하게 표시된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종류는 “연필을 가지고 있습니까?”와 같이 “가부”를 묻는 의문문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상이한 언어에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어와 독일어와 같은 북유럽어들은 보통 문장의 형태로 그것이 질문인지를 나타낸다. 영어에서는 “Have you ... ?” (또는 “Do you have ... ?”)로 쓰면 질문이고, “You have ...”로 쓰면 질문이 아니다. 불어는 억양을 사용하여 “Vous venez?” 하거나 도치문을 사용하여 “Venez-vous?” 할 수 있다. 둘 다 “Are you coming?”이라는 의미이지만, 억양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친숙한 것이고 도치문은 보다 정중한 표현이다.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와 같은 남유럽어들은 보통 억양만을 사용한다. 표준적인 이탈리아어 문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영어의 의문 문장(즉, “예”와 “아니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의 종류)은 일반적으로 긍정문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예: “You are coming” 대 “Are you coming?”). 그러나 이탈리아어에는 보통 그러한 구별이 없다: 진술과 질문을 구별하는 것은 의문부호¹⁾의 존재(글로 쓸 때)와 문장의 끝부분을 올리는 억양의 패턴(말로 할 때)이다(Maiden and Robustelli 2000, 147).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약성서 그리스어는 남유럽어와 비슷하다. “예/아

1) 스페인어에는 또한 도치된 의문부호가 의문문의 시작 부분에 존재하기도 한다.

니오”와 같이 가부를 묻는 의문문을 식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그것은 오래된 신약성서 사본들이 의문부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신약성서의 사람들이 사용한 억양 패턴에 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로저 오맨슨이 지적한 대로, 왜 신약성서의 판본이나 번역본들이 상당히 자주 어떤 문장이 진술문인지 의문문인지에 관하여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은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질문들은 그것이 기대하는 대답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또한 구별될 수 있다. 가부를 묻는 의문문들은 그것의 구조나 화자의 억양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영어를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그것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요? (기대되는 대답: 물론,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대답: 물론, 나는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기대되는 대답을 이끌어낼 것인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에 속한다. 불어와 독일어와 같은 어떤 언어들에는 어떤 대답이 기대되는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방식을 갖고 있다:

불어: Vous partez déjà? *Si.* (벌써 떠난다구요? 예, 떠납니다.)

독일어도 이와 비슷하다: Sie gehen nicht schon weg? *Doch.* (아직 떠나지 않는 거지요? 아니요, 떠납니다.)

이러한 형식들은 불어의 *oui*와 독일어의 *ja*와 같이 “예”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다.

의문사를 가진 의문문 역시 두 가지 종류 중 하나에 속한다: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대답을 얻는 것에 관계없이)과 그렇지 않은 질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은 순수의문문(*real questions*)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질문은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s*)이라고 부른다.

순수의문문: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기차를 타야 할까요? 언제 기차가 떠나나요?

수사의문문:

어떻게 오늘밤에 모스크바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의미: 당신은 오늘밤

에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우리가 당신이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아픈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마 25:37-39를 보라). (의미: 확실하게 말해서 우리는 당신이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 등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의 인용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들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들었다. 그렇다.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수사의문문이 아니라 순수의문문으로 오해될 수 있다. “언제 우리가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돌보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경우는 특히 수사의문문을 사용하지 않는 언어나 특별한 경우에만 수사의문문을 사용하는 언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마태의 이야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질문들은 보다 넓은 문맥이 분명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쉽게 오해될 수 있다. 나아만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왕하 5:12; 개역개정판에는 “아마나 강”으로 번역됨: 역자 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잠시 동안 이 질문을 순수의문문으로 오해하여, 마음속으로 “글쎄요. 당신이 나보다 고대 다마스쿠스의 지리에 관해 더 잘 알겠지요. 당신이 그것들이 다마스쿠스의 강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에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알 수 있듯이, 잠시 후 곧바로 대부분의 청자들은 그 문장이 수사의문문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될 것이다: 즉,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다마스쿠스의 강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강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은 “우리 고향의 강이 확실히 더 좋다.”는 의미이다. (보다 넓은 문맥에서 보면, 나아만이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요점은 아니다.)

우리는 아는 한, 모든 언어는 수사의문문을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수사의문문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특정한 기능(예를 들어, 비난이나 불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한다. 우리는 글을 쓸 때보다는 말을 할 때, 그래서 아마도 글보다는 말을 더 사용하는 구전 사회(oral society)에서 수사의문문이 더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신약성서의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주로 구전사회에서 비롯된 문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35

개의 수사문의문문이 서사이야기(narrative) 그 자체 안에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모두 서사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입술을 빌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부분이 욱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욱기는 특히 의문문이 풍부하고, 그들 중 대부분은 수사문의문문이다. 욱기 3:3-10의 저주에 이어서 나오는 욱의 감동적인 탄식은 11-12, 16, 20-23절에 “왜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는가?”²⁾라는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일련의 “왜” 질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욱은 소위 친구라는 자들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38-41장에서 욱에게 최종적으로 준 대답을 더욱 더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어떤 사람은 통렬한 대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욱이 처음에 한 질문은 확실히 “나는 모태에서 죽었어야 했다.”라거나 “내가 모태에서 죽었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과 많은 번역본에서 의문문의 형태는 보다 큰 감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욱기와 같이 대부분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밖에 있는 또 다른 작품인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The Waves* (1931)로 잠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20페이지가 넘는 대화의 한 부분(54-77쪽)은 버나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는 누구인가?”³⁾라고 질문하는 많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때때로 버나드는 자신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기도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질문한다. 이것인가? 아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다”(54쪽).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은 순수문의문문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다음의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나에게 하기로 하자 ... 이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 내가 나 자신에게 ‘버나드야’라고 말할 때 누가 나아오는가? 어느 특정한 나이나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저 나 자신일 뿐이다”(58). 그러나 또 다른 단락에서 버나드는 자신에게 수사문의문문으로 질문하고 있다: “시가 아니라면, 어젯밤에 내가 쓴 것은 무엇인가?” (의미: “내가 어젯밤에 쓴 것은 확실하게 시다.” 그 다음 즉시 그는 순수문의문문을 사용한다: “내가 너무 빠른가, 너무 유창한가?” 그리고 나서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한다(60). 한 종류의 의문문에서 다른 종류로 전환하는 것은 그 단락의 효과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수사의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종종 그것을 번역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화자(보통 저자는 덜 그렇다)는 스스로⁴⁾ 그의 질문이 순

2)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구절의 인용은 2011년 영국판 NIV에 근거하고 있다.

3) “나는 누구인가?” (울프 1931, 60, 70)와 비교하라.

4)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남성 형태는 적절한 문맥에서는 여성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의문문인지 수사문의문문인지에 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청자는 확신을 가질 확률이 훨씬 줄어들는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쇠약해져 가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억양과 전후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종류의 의문문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배경이 화자가 어떤 사소한 실수를 범한 것을 단지 가리려하는 것임을 시사한다면, 그것은 수사문의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스무 살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암시하는 바는 “나는 명백히 쇠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지만, 방금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했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화자가 여든 살이고, 그의 목소리의 어조가 근엄하며, 또한 치매의 다른 증상을 보인다면, 그것은 순수문의문일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선의를 가진 친구들은 대답을 시도할 것이다.

번역자가 그의 (기록된 또는 구전의) 텍스트에서 어떤 종류의 의문문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번역의 수용자(독자 또는 청자)는 그것을 오해할 수 있다. 문자적인 번역을 읽는 수용자는 수사문의문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것을 성경에서 기대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질문에 대하여 왜 대답이 없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아니면 수용자의 언어가 원어보다 수사문의문을 더 드물게 사용할지 모른다. 그 결과 수용자는 문자적인 번역을 어렵거나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며—그것 때문에 성경에 책임을 돌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번역자들이 접하게 될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욱 광범한 것이다. 신약성서 그리스어의 표준 문법은 수사문의문을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다(Blass and Debrunner 1961, 262–263 [§496]). 보다 오래된 네 권으로 된 신약성서 문법책은 수사문의문을 전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다(Moulton et al. 1906–1976).⁵⁾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1989)의 제2판은 이전 자료를 인용하면서 수사문의문에 대해 정의하기를,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들이지만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하여 질문의 형태를 취할 뿐이다.”⁶⁾라고 기술하고 있다. 엘킨스(1972, 21)는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에서 “대답을 유도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사적인 효과를 위해 삽입된 질문.”이라는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 Vol. 4, 34에 암시적인 참고사항이 있다.

6) “수사적인”이라는 항목 아래에 있음. 인용된 자료는 1884년에 처음으로 발행되었던 Bradley’s Aids to [Writing] Latin Prose, §150인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영어와 라틴어가 이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있지만, 이것이 많은 다른 언어에서도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3rd ed.)는 “대답이 기대되지 않으며 종종 수사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질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Chambers English Dictionary*는 “질문의 형태를 갖지만, 수사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대답을 바라지 않는 질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 가운데 다양한 단어들(필자가 이탤릭체로 쓴)은 긍정적(그리스어 *ou*, 라틴어 *nonne*)이든 부정적(그리스어 *mē*, 라틴어 *num*)이든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질문들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물론, 질문을 제기한 사람이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따라올 수 있고, 또한 질문의 형태가 기대하고 있는 대답과 반대되는 대답이 따라올 수도 있다.

이제는 이러한 예비적인 설명을 벗어나 신약성서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수사의문문(아마 많게는 700개)에 대해서 말할 차례가 되었다. 학자들은 때때로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지나가는 길에 간단히 언급하여 왔다. 그것은 아마 그들 자신의 언어에서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역동적/기능적 동등성의 번역보다 형식적 일치 번역이 본문에 더 “충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에서는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지 문자 그대로 질문으로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하는 강력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난제들은 상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질문의 번역 문제를 전적으로 취급한 *Notes on Translation*⁷⁾의 한 호(1972)에서, 롱게커(Robert E. Longacre)는 멕시코의 한 언어인 트리키(Triqui)에 관해서 보고하고 있다:

고린도전후서와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 제공자(informant)로부터 “이러한 질문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종류의 반응을 듣게 되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당혹해 하곤 한다. 또는 어떤 대답—때때로 틀린 대답—을 제시하려고 시도하곤 했다. 그는 질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거나 그 질문 때문에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보 제공자⁸⁾(Celestino Cruz)는 내가 번역하면서 함께 일한 사람 중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문제들은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39쪽).

예를 들어,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⁹⁾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보 제공자는 “글쎄요. 당

7) 이전에 SIL에서 발행된 잡지임. 이 호(no. 44, 1972)의 내용은 1932년에 출판된 코노팩(Konopáek) 이래 성경에 나오는 수사의문문에 대한 가장 자세한 연구인 비크만과 켈로우의 책(1974) 229-49에 본질적으로 비크만에 의해서 추가적인 분석과 함께 요약된 것이다.

8)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보다 국외 거주자가 번역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신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라고 반응을 보였다. 그러한 질문들이 수사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진술문(평서문)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와 비슷한 보고서가 엘킨스(Richard E. Elkins)에 의해 필리핀의 Western Bukidnon Manobo에 관하여, 앤드류스(Henrietta Andrews)에 의해 멕시코주의 Otomi에 관하여, 커크패트릭(Lilla Kirkpatrick)에 의해 인도 중앙부의 Korku에 관하여, 그리고 크라우치(Marjorie Crouch)에 의해 가나의 Vagla 에 관하여 동시적으로 제출되었다(1972)¹⁰⁾.

1960년에 코우완(Marion M. Cowan)은 “훅스테코어(Huixteco)로 질문을 번역하기”라는 제목으로 *TBT*에 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그 논문은 마태복음 6:25에 대한 번역자들의 난제를 보고한 것인데, 그들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문장을 보고, 무엇보다도 음식과 옷은 그들이 그 두 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번역자들은 결국 이것과 몇몇 다른 질문들을 “강조 문장”으로 “바꾸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 논문으로 인하여 편집장인 유진 나이다(Eugene Nida)는 “여기에 제안된 이러한 종류의 해결은 진지한 고민 없이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평적인 서문을 진지한 열 줄 문장으로 신게 되었다(Cowan 1960, 123). 그러나 1967년이 되었을 때, 나이다는 히브리서 1:5의 수사의문문을 “강조적인 부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도 결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N.E.B.와 비교하라)”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Nida 1967, 119).

4년 후에 그레더(Herbert G. Grether)는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수사의문문을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였다(1973, 240). 그러면서 이사야 50:1(RSV)를 예로 들었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려는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그는 당시 일부 번역본은 10상반절을 문자적으로 질문으로 번역하였고, 일부는 진술문으로 번역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레더보다 한 세대 후에도 불일치는 계속되고 있다(사 50:10):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의 말을 순종하느

9) 고전 1:20; 이와 마찬가지로 3:5; 4:7.

10) Notes on Translation의 동일호 21-24, 25-28, 28-36, 36-39쪽에 각각 실려 있다.

냐?(NIV)

주님을 높이고 그의 종의 말을 순종하는 너희 모두는...(TEV)

너희 중 아무도 주님을 존중하거나 그의 종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
으니...(CEV)

로저 오맨슨의 구두점 표시란에는 마태복음에서만 그리스어판과 번역본들 중 이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곳이 열다섯 군데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대부분 본문을 의문문으로 볼 것인가 또는 진술문(평서문)으로 볼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다; 26:50에서 예수는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친구여, 빨리 행하라!”(GNB 본문)인가, 또는 “친구여? 왜 여기에 왔느냐?”(GNB 난외주)인가? 그러나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의문문과 수사어문문 사이의 선택인 것 같다. 빌라도가 예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27:11)라고 질문한 것이 진지한 질문(예수가 스스로 죄목에 걸리도록 만들려는)인가, 또는 “확실히 당신[강조형 *su*]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로군요!”(NRSV)라는 의미인가? 또는 27:42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네!”라고 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 그가 주장한 대로야.”라는 의미를 담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가?”(GNB)라고 사람들이 질문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문문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그것이 기대되는 곳에서도 종종 결여되어 있다. 나이다와 테이버(Taber)의 고전적인 연구인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TAPOT)은 1969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그 당시에는 “성경 번역자의 성경”으로 알려진 사랑받는 책이었지만, 오로지 간단한 하부 항목으로만 취급하였다. 그 책은 “수사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종종 제공되어야만 하며, 그럼으로써 청자가 포함된 의미를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30).¹¹⁾는 원리를 제시하였을 뿐이다. 드 바르드(de Waard)와 나이다가 쓴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1986)는 몇 가지 관점에서 TAPOT의 후속편으로 볼 수 있는데, 수사의문문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Baker 1998)에도 “수사의문문”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J.-C. Margot (1979, 89, 324, 332–33)는 번역상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는 몇몇 신약성서 본문을 언급하면서 보다 충분한 논의를 보여준다. 마고(Margot)는 이미 출판한 지 5년이나 지난 1979년이 되어서야 신약성서의 수사의문문과 그것의 번역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연구로 남아있는 자료에 대해

11) 또한 나이다의 책(1964), 209을 참고하라.

언급할 수 있었다.¹²⁾ 1974년에 출판된 비크만과 캘로우의 책¹³⁾ 15장은 수사의 문문에 관해 다루었다. 그 시대에 있어서조차 오히려 구식 냄새가 나는 제임스 왕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비크만과 캘로우의 책은 그리스어 본문을 주의 깊게 다루면서 수사의문문의 다양한 형태에 배어 있는 원리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과 번역의 문제에 대한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 책은 일반적인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특정한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귀납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의 수사의문문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진술문(보통 부정문)으로 다시 써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비크만(1972, 237)은 복음서를 다루면서 “평행단락의 사용으로 모호함을 해결하기”라는 항목을 설치했지만, 전적으로 다른 단락을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옳았다.

예를 들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막 2:24)라고 하였는데, 마태는 그것을 수사의문문이라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술문(평서문)으로 바꾸어 제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이 마태(6:25)에 의해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라는 수사의문문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비해, 누가(12:23)에 의해서는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진술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복음서의 평행구절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들은 사본을 베껴 쓸 때 되풀이되었다. 팔목할 만한 예가 자기 종을 힘들게 일하게 한 주인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에 나타난다. 누가복음 17:7-9의 전체 단락이 이에 해당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2) 보다 오래된 Konopáek (1932)의 글 역시 원어 연구와 광범한 번역의 연구에 여전히 유용하다.

13) 이 장은 Beekman (1972)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이 자료와 다른 자료를 제공해 준 위클리프 영국 도서관의 루스 웨스턴(Ruth Weston)에게 감사한다.

예수는 스스로 8절에서 그의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기대되는 대답은 “아니오”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한 대답이었다. 그는 두 번째 질문(9절)에 대하여 같은 대답을 기대하는 수사어문문으로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많은 고대의 권위 있는 사본들은 *ou dokō*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메츠거(B. M. Metzger)는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이렇게 반박하는 말대꾸는 ... 여백에 주를 단 형태로 존재하다가 서방본문으로 흘러 들어갔다”(1994, 141).¹⁴⁾고 하였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질문 중 많은 비율이 수사어문문이다. 마태복음 11:7-9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문맥상 질문자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어문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대답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2:3, 5에서 예수가 바리새파 사람에게 한 말은 전형적인 의문문-부정문인데, “너희는 [율법책에서]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확실히 [율법 전문가로서] 너희는 읽어보았을 것이다”라는 의미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종종 수사어문문은 그것이 진술문으로 재구성될 때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데, “확실히”와 같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표시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12:11)라는 말은 “확실히, 잡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의미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질문의 형태는 “예”라는 대답을 요구한다. 다른 예를 생각해 보자: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12:34)라는 말은 “악한 너희는 확실히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요한복음 역시 수사어문문으로 가득 차 있다. 아마 2011년 NIV판이 가장 좋은 예가 될 만데, 이들 언어학적으로 보수적인 번역본들은 의문문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GNB와 같은 기능적-동등성 번역본은 그것을 진술문으로 변형시킨다. 예를 들어보자.

NIV	GNB
4:35 “너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너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된다.”는 말이 있다.
6:70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였다. 그렇잖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14) 예를 들어 고전 5:12; 12:15와 같은 수사어문문과 연관된 유사한 본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메츠거의 *Commentary* (1994) 외에 Thiselton (2000), 415, 1002-1003을 참고하라.

<p>7:42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라고 앉았는가?</p>	<p>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라고 말한다.</p>
--	--

여러 예 중에서 요한복음 6:42; 7:51; 9:40, 42; 10:34; 19:10을 비교해 보라:
 신약성서와 다른 곳의 여러 부분에 수사어문문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미 충분히 말했으며, 또 여기에 훨씬 많은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수사어문문은 고대의 필사자들, 본문비평가들, 주석가들, 번역자들, 그리고 아마 번역본을 대하는 대부분의 독자나 청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해 왔다. 번역자들이 정의해야 할 원리와 절차 중, 그들의 대상/수용(target/receptor) 언어에서 수사어문문의 현저함과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유연하지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⁵⁾ 번역자들은 어쨌든 하나하나의 경우마다 신약성서 본문의 수사어문문의 사용이 얼마나 잘 대상/수용 언어에서 활용되고 또 상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수사어문문, 의문사를 동반한 의문문, 가부를 묻는 의문문, 불어, 독일어, 획스테코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트리키어, 옴기, 버지니아 울프, 비크만과 켈로우, 로저 오맨슨, 장클로드 마고, 유진 나이다.

Huixteco, ,Trique, Virginia Woolf, Beekman and Callow, Roger Omanson, Jean-Claude Margot, Eugene A. Nida.

15) 나는 이 논문의 초안을 읽고 조언해 준 클락(David J. Clark)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 Baker, Mona,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 Beekman, John, “Analyzing and Translating the Questions of the New Testament”, *Notes on Translation* 44, (1972), 3–21.
- Beekman, John, and John Callow,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2nd edition (1986).
- Blass, F., and A. Debrunner with R.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Cowan, Marion M., “The Translation of Questions into Huixteco”, *TBT* 11:3 (1960), 123-125.
- De Waard, Jan, and Eugen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1986.
- Elkins, Richard E., “Supposition Rules for Rhetorical Questions in English and Western Bukidnon Manobo”, *Notes on Translation* 44 (1972), 21-24.
- Grether, Herbert G., “Translating the Questions in Isaiah 50”, *TBT* 24:2 (1973), 240-243.
- Konopáek, J., “Les ‘questions rhéoriques’ dans le Nouveau Testament.”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12 (1932), 47-66, 141-161.
- Longacre, Robert E., “Rhetorical Questions in Trique”, *Notes on Translation* 44 (1972), 39-40.
- Maiden, M., and C. Robustelli, *A Reference Grammar of Modern Italian*, London: Arnold, 2000.
- Margot, J.-C., *Traduire sans trahir. La théorie de la traduction et son application aux textes bibliques*, Lausanne: Editions L’Age d’Homme 1979 (repr. 1990).
- Metzger, Bruce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ition,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1994.
- Moulton, J. H., et al.,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3rd edition, Edinburgh: T. & T. Clark, 1906–1976.
- Nida, Eugen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4.
- Nida, Eugene A., “Difficulties in Translating Hebrews 1 into Southern Lengua”, *TBT* 18 (1967), 117-122.
- Nida, Eugene 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 Thiselton, A.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0.
- Woolf, Virginia, *The Waves*, London: The Hogarth Press, 1931, 4th edition, 1946.